

Cultural Aspect of Spiritual Care : Loss and Grief in Asian Culture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종양내과

홍 영 선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holistic care라 불리고 있으므로 이 것에 참여하면 당연히 육체적 문제나 정신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생각하게 되며 영적인 문제도 생각하고 다루게 된다. 사실 영적인 문제는 호스피스만의 전유물은 아니나, 일반적인 의료에서는 영적인 문제는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돌리거나 성직자들에게 의뢰를 할 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 많은 의료인들이 인간의 삶에 있어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으나 그 문제에 자신이 개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자신이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훈련을 받지 못했다거나, 확신이 없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있어 타인의 영적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이러한 의료인들과 많이 다르지 않아 환자들의 영적인 문제를 접할 때 망설이기 일수이며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1] 따라서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여 봄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다만 '영적인 돌봄' 자체의 문화적 측면을 고찰하는 것은 너무 방대하여 환자의 입종 후 남은 가족의 '상실과 슬픔의 문화적 측면'으로 범위를 좁혀 고찰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족의 죽음에 반응하는 애도(mourning)의 방식에 있어 모든 문화권이 각자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었음을 유추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이민과 빈번한 국제

교류에 따라 각 문화 집단의 애도의 양상이 변해 왔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사별에 대한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죽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어떤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지를 정의할 때 주의를 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2]. 또한 타인의 경우에 애도를 함에 있어 어떤 것이 최선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선불리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애도의 방법이나 기간에 있어 어느 것이 정상인지는 문화권에 따라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3, 4].

사별에서 나타나는 슬픔의 양상이나 지속시간은 문화권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오스트리아의 한 황후는 1922년 4월에 황제가 사망하였는데 1989년 3월 사망 시까지 67년간 검은 색 옷을 입었고, 이태리에서는 장례식에서 하관 시에 가족들이 무덤으로 뛰어들어 가는 일이 드물지 않으며, 인도에서는 20세기 초 까지도 미망인들이 남편의 화장용 장작더미 위로 몸을 던지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는 슬픔을 공공연히 표현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것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데, 푸에르토리코 문화에서는 특히 여성들의 경우 경련과 같은 발작을 보이면서 절제되지 않는 감정을 들어내는 것으로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하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동남 아시아에서는 남녀 모두 공적으로 슬픔을 표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감정표현에 있어서 절제되고 금욕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된다고 한다[5].

인구의 수나 그 영향력의 측면에서 보아 아시아의

종교는 큰 두 줄기로 나뉠 수 있으며 그 것은 인도의 종교와 중국의 종교이다. 인도의 인구는 약 8억이 되며 이들 중에는 다양한 인종적 특징과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데 인구의 약 80%가 힌두교를 믿고 있으며 회교와 시크교, 기독교도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카스트제도와 업(業)에 대한 힌두교적 관념이 널리 퍼져있다. 힌두교 문화권에서는 죽음을 인생 주기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한 존재의 반복된 출생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힌두교도 들은 삶은 출생 전부터 시작되며 죽음 이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믿는다. 또한 그들은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열반(nirvana)에 이르기 위한 지속적인 업(karma)의 진화(evolution)과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장례 예식도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철저히 지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세에 같은 karma로 태어나게 되어 원하는 영적 진화를 얻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이 남편이나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여성이 자살을 할 경우 가족에게 평안과 명예를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에 남편의 사망 후에 여성이 자살을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

중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부 아시아 문화권은 유교와 불교,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의 유사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문화권에서는 죽음을 인생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이로 여기며 효도와 의를 중시하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가 사망할 때 적절한 예식을 지켜서 장례를 하는 것을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덕목으로 생각하였다. 중국 문화권에서는 영혼이 불멸한다는 관념이 전해 내려와서 애도예식에 큰 영향을 끼쳐 왔는데, 亡者가 잘 떠나고 가난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이 돈, 종이 집 또는 다른 물건들을 태우거나 亡者가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음식을 마련하기도 한다. 弔問客들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칭송하는 말을 한다. 과거 중국에서는 망자가 지옥에 가는 것을 막

기 위하여 도교의 승려들을 고용하여 망자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였다. 철야와 葬禮式에서는 배우자나 자손들이 격렬하게 우는 것이 보통이나 일단 葬禮式이 지나가면 그들의 감정을 억제하도록 요구받는다. 일단 장례식이 끝나면 '죽음'이나 그와 유사한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을 꺼려하며 특히 결혼식이나 생일 같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아주 금기 시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유교의 가르침을 대부분 따르지 않으며, 업(業)과 윤회(輪廻), 그리고 前生の 善行이나 惡行에 의하여 現世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는다. 따라서 환자가 사망할 때 가족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 대부분 火葬을 하는 것이 유교의 영향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권장되는 애도의 기간은 49일이며 가족들은 이 기간동안 특정한 색의 옷이나 띠 또는 완장 등을 두르는데 중국에서는 검정색을 우리 나라에서는 흰색을 사용한다. 또 이기간 동안에는 결혼과 같은 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년 사망일과 특정한 날(중국에서는 춘분과 추분, 한국에서는 설날과 추석)에 성묘를 하여 죽은 조상에게 경의를 표한다. 중국 문화권에서는 이와 같이 사망 후에도 가족관계의 유지가 중요시되어 조상숭배의 관습이 계속되고 있다. 조상의 영혼이 자손과 직접 교류하며 자손을 축복하고 해악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는다. 그러나 많은 불교신자들은 이러한 조상 숭배를 하지 않는대기.

이와 같이 상실과 그에 따른 애도의 표현 양상은 망자와 그 가족이 속한 문화권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한 가족의 상실에 따른 슬픔을 이해하고 그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McGoldrick들[8]이 제시 하듯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파악되어야 하겠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상실과 애도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차이점과 특성에 따라 특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더욱 절실히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1. Doyle D. Have we looked beyond the physical and psychosocial? *J Pain Symptom Manage* 1992; 7:302-11.
2. 홍영선, 염창환, 이경식. 아시아 문화권에서의 상실과 슬픔.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3. McGoldrick M. Ethnicity and the family life cycle. In Carter B, McGoldrick M, editors.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2nd ed. Boston: Allyn & Bacon.
4. McGoldrick M, Hines PM, Garcia-Preto N, Lee E. Mourning rituals. *The Family Therapy Network* 1986;Nov-Dec:28-36
5. McGoldrick M, Almeida R, Hines PM, Rosen E, Garcia-Preto N, Lee E. Mourning in different culture. In *Selected articles/excerpts for new counsellors*, Vol. II, Mary Potter Hospice, 1996; 177-204
6. Jensen JM. East indians. In *Selected articles/excerpts for new counsellors*, Vol. II, Mary Potter Hospice, 1996:177-204
7. Lee E. Mourning rituals in chinese culture. In *Selected articles/excerpts for new counsellors*, Vol. II, Mary Potter Hospice, 1996;200-4.